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9063.84	↓ 코스닥	1000.93
	(+199.60)		(-31.03)
↑ 금리 (연율)	3.750	↑ 환율 (원/달러)	1529.85
	(+0.040)		(+16.45)

노란봉투법 3개월
하청노조 1137곳
교섭 요구
02



세계 사로잡은 K-푸드 지속가능 성장 청사진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지식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2026 푸드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아 전 세계 시장과 식탁을 사로잡은 국내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외연 확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L7·L8>

메트로경제, 식품산업 현재 진단 2030년 수출 210억 달러 달성 목표 제품발굴, 콘텐츠 융합 마케팅 추진 글로벌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장기적 수출인재·인프라 조성 계획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중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전 세계 208개국으로 수출길이 넓어졌으며, 라면과 소스류는 물론 신선 농축산물과 수산물까지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10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137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의 성장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식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문제의식이 전면에 제기됐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만큼 한식당'인 모방 업소가 늘어나 소비자 경험을 훼손하고 있고, 특정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K-푸드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전략위적인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K-푸드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수출 160억 달러 돌파라는 도전적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상에 선 유재형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은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통성과 매력을 겸비한 제품 발굴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윈스톱 지원 허브 가동 ▲K-콘텐츠 및 관광과의 융복합 마케팅 ▲AI·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중동·유럽 등 유망 시장 다변화가 핵심이다. 아울러 프랑스의 '브 코르동 블루' 같은 세계적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한식 대표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설립해 장기적인 수출 인재 인프라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합동 K-푸드 수출 기획단을 중심으로 신규 유망 시장을 개척하고, 스마트 수출 전문 단지 확대 및 첨단 푸드테크 접목을 통해 식품 제조업의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발표에서 박수영 해수부 수출기공진흥과 사무관은 "올해 수산물 수출액 35억 달러, 김 수출 12억 5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외해 양식 및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AI 기반 마린김 등급제를 시범 도입해 국제 마린김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특화 수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K-김(K-GIM)' 영문 명칭 확산 등을 통해 글로벌 비관세 장벽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은 정부의 정책적 마스터플랜과 함께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성공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총망라하며 K-푸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통찰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이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유재형 식품외식산업과장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훈 기자 ch9720@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 역사를 새로 썼다.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하나인피니티서울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9000 돌파 기념 타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

코스피, 9000 돌파... 삼전·하닉 강세 지속

코스피 9063.84 마감... 2.25% ↑
올해 110% 올라, 세계 주요지수 1위
삼전·하이닉스 시총비중 54% 차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두 종목이 시총액(시총)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만 질주하는 'K자형 증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2.25% 오른 9063.84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4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22일 5000선, 2월 25일 6000선, 지난달 6일과 15일에는 각각 7000선과 8000선을 넘어선 바 있다. 1000마디선씩 넘는 기간을 살펴보면 4000에서

5000까지 87일, 이후 6000까지 34일, 7000까지 70일, 8000까지 9일이 걸렸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까지 110%가량 오르며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이 11.96%, S&P 500이 8.39%, 다우존스가 7.13%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가히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주가 코스피를 9000선으로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51% 오른 268만5000원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4.62% 오른 36만2500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이어갔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40%로 절반을 웃돈다.

코스피의 올해 전망치를 '1만회'(코스피 1만)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늘어나고 있다. JP모건·모건스탠리·노무라증권 역

시 코스피 지수가 1만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산업 성장을 지탱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게 이런 전망의 주요 근거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투자자들은 메모리 가격이 수직상승 후 완만해지면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평가치)"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1만, 2만배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은 791개로, 상승 종목 109개의 7.26배에 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美 기준금리 동결... 점도표는 '매파' 전환

연준, 경기전망 낮추고 물가전망 상향
한은 금통위, 금리인상 필요성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와 물가 전망을 통해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켰다. 한국은행도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로 평가하면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는 인하보다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 따르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표결은 12대 0 민정일치였다. 겉으로는 시장 예상과 부합한 동결이었지만, 성명서와 경제전망,

점도표를 종합하면 내용은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이지 않았다.

◆ 물가가 끌어 올린 점도표

연준은 성명서에서 중동 분쟁 등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고용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와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물가는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분의 공급 충격 영향으로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핵심은 경제전망이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월 2.4%에서 2.2%로 낮췄

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은 2.7%에서 3.6%로 대폭 올랐다. 근원 PCE 전망도 2.7%에서 3.3%로 상향했다. 경기 전망은 낮추면서도 물가 전망을 크게 끌어올린 셈이다.

금리 경로 역시 위로 이동했다. 점도표 상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3월 3.4%에서 6월 3.8%로 높아졌다. 2027년 말 전망도 3.1%에서 3.6%, 2028년 말 전망도 3.1%에서 3.4%로 상향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점도표를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25bp 인상 전망이 3명, 50bp 인상 전망이 5명, 75bp 인상 전망이 1명이다. <8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홍준표 "빈대정치를 하고 있는 것"... '대안과미래' 장동혁 퇴진 여론에 비판 /사진 뉴스
▲국힘, 11개 지역 선거소청 제기... "유권자 참정권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 명백"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금품까지 받은 경찰 구속송치
▲한동훈 집 앞에 흥기 둔 4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美서 수입 중단까지" 광주·전남 노동단체, 영전 노동착취 대책 촉구
▲내달부터 '방문 도로연수' 광고도 처벌... 알선 행위 단속